

봉사를 통한 은총의 선물들

김도은(세라피나)

성가롤로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하느님은 사랑이시지요, 내가 받은 은총을 어찌 말로 다 표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어, 저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아내가 눈물을 보이니, “여보, 왜 울어? 당신은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내 뒤통까지 온몸과 온 정성을 다해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지,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도 타인을 위해 사랑을 전해야지. 난 당신이 부럽네, 교리를 통해 하느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가.” 일흔이 넘는 나이에 대세(代洗)를 받으시고, 그 기쁨에 매일 하느님을 찬양하며 주옥(珠玉)같은 말씀을 하셨던 최○○(가브리엘)은 2021년 8월 13일에 하느님 품에 편안하게 안기셨습니다. 신앙에 첫걸음을 뗀 분이셨지만, 하느님을 향한 그분의 열정을 보며, 무더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하고 있는 곳은 순천 성가롤로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톨릭 수녀회인 「예수의 까리파스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환자분들에게 신앙의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환경에 좀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봉사를 통해 많은 호스피

스 환자분들을 만났고, 그들이 가는 마지막 길에 신앙에 입문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신앙이란 무엇이며, 삶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고, 하느님은 이 거대한 의문에 하나씩 답을 주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떨어진 삶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이며, 삶과 죽음을 연결시켜 주는 다리 역할이 신앙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결코 고통스럽지 않은 하나의 과정이며, 죽음에 대한 나의 선택은 없지만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며 오늘이란 하루의 소중함을 알았고, 욕심이라는 커다란 보따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나 자신을 낮추게 되면서 자연스레 어떤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自願奉仕)란 어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했던 위로의 말이 나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고, 그들을 향한 진심은 커다란 선물이 되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러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리에서 오늘도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가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헌신하는 그들의 노력이 있기에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 만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마태 22,40) 말씀을 오늘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봉사자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